턱시도와 피 묻은 채색 옷

(창37:12~36)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3.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턱시도와 피 묻은 채색 옷>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턱시도와 피 묻은 채색 옷'
턱시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성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룡이 나오는 영화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 분이 영화 속에서 '지미 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총알택시 운전사입니다.
운전을 환상적으로 잘하니 그 운전 솜씨를 눈여겨보던 비밀첩보국 CSA에서 그를 최고의 요원인 클락 데블린이라는 사람의 개인 운전사로 스카우트합니다. 그런데 이 지미 통은 클락 데블린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클락 데블린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지미 통을 겨우 구하고 죽으면서 그에게 내 대신 턱시도를 입으라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미 통이 이 턱시도를 입자 턱시도가 저절로 움직이면서 무술 최고 고단자의 실력이 나올 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히어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 알고 보니 이 턱시도가 CSA의 최첨단 비밀병기였고, 이 턱시도를 입고 있는 운전사인 지미 통에게 턱시도에 있던 통신장비를 통해서 미션이 주어지고, 온 세계의 식수를 점령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악당에 맞서서 악당의 음모를 저지하라는 비밀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택시 운전수가 턱시도를

입고 악당에 맞서서 이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재미있겠죠? 한 번 보시죠.

턱시도를 입으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옷을 한 번씩은 다들 꿈꿔본 것 아닙니까? 옷을 좀 더 확장해서 나의 신분이나 지위로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옷을 입었을 때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다못해 어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간부가 되어도 막강한 힘이 주어지고, 별을 하나 달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옷이라고 비유될 때에 턱시도라는 영화는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형들의 의도적인 음모에 의해서 염소 피에 범벅이 되고 찢겨버린 채로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턱시도라는 영화에서 총알택시 운전사 지미 통은 턱시도를 입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는데, 아들 요셉이 입었던 피 묻은 채색 옷을 앞에 둔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턱시도와 채색 옷을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 앞에 놓여 있는 피 묻은 채색 옷은 형들의 악한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작용하면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마음속에서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하늘의 비밀병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전체를 지배하는 마귀에게 맞서는 하늘의 비밀병기가 바로 피 묻은 채색 옷인데 이것에 대해 꼭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색옷의 파급 효과가 무엇이고, 그 파급효과의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채색 옷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다가 도단으로 옮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형들에게 무슨 사고가 나거나 잘못 된 일은 없는지, 다 잘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버지께 보고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합니다.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다 자기 밑에 부복하고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꾼 자가 온다고 합니다.
형들이 의논을 해서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에 장자 르우벤이 동생들의 안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 전체에 대한 책임이 우선적으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 하에서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빠뜨리자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동생들의 분이 좀 삭혀지면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죽이려고 다시 모의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서 이스마엘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오니 그들에게 동생을 팔아서 애굽에 노예로 보내버리자고 합니다. 어쨌든 동생인데 피를 묻혀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설득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노예로 보내놓고 염소를 죽여 채색 옷에 범벅을 해서 옷을 찢어서 아버지 앞에 내놓고 우리 동생 요셉이라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때의 야곱의 충격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 채색 옷을 보고 야곱은 요셉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믿게 됩니다. 실제로는 요셉이 죽은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채색 옷에 피가 묻어 찢겨있는 것을 보니 완전히 죽은 것으로 믿어버립니다. 야곱의 마음이라는 세계 안에서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 묻은 채색 옷이 야곱 앞에 놓이도록 섭리하셨을까요?
형들의 악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허락하신 것처럼.
그 채색 옷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3-35절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14년 동안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고된 노동조차도 어려운 줄 몰랐던 라헬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렸다는 기사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죽으며 아이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자 ‘베냐민,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오른손의 아들, 권세의 아들, 탁월함의 아들, 기쁨과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면서 아들을 따라서 스올로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는 이미 스올이 임했어요. 스올은 이미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입니다.
마음에는 밑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야곱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스올로 따라가겠다는 말의 의미는 더 이

상 이 땅 위에서는 내 마음이 만족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에, 더 이상 세상에서는 만족거리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하거나,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채로 죽지 못해 연명하는 삶을 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비로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비밀병기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노년이라는 것은 늦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년에 얻었음으로'라는 이 말에서 성경이 뜻하는 바는, 야곱이 108세 때에 요셉의 나이 17세에 팔려갑니다. 108세에 이르는 동안에 야곱이 험악한 생애를 삽니다.
성경의 기록상 단 한 번도 평안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성경상의 기록은 숙곳에서의 10년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늦둥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이끄시는 마지막 목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늦은 나이에 요셉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야곱 마음속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자라는 과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 점점 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형들을 고자질하는 것인데 그 고자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 추행사건 때도 그렇고 형제들이 단합합니다. 단합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할례 시킨 후에 죽일 것이라고는 야곱은 몰랐어요. 자기를 속이고 형제들끼리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상하게 형제들과 단합을 하지 않고, 하나로 뭉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들의 잘못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땅에서 돈 잘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러면 안되는데 형들이 자꾸 그렇게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갈 때의 나이가 77세인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점점 더 요셉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볼 때에 언제부터 요셉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만 하늘에 기준을 두고 이 땅에 이야기를 하니 신통합니다.
어렴풋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어린 열한 번째 아들이 하늘을 기준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

세상을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신통하고 예쁘고 자랑스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돌보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내 아들이 자발적으로 추구해 들어갈 때에 그보다 더 예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연히 아버지의 지갑을 봤습니다. 삼형제 중 제가 막내인데 제 사진만 넣고 다니십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저는 공부를 할 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에 코피 터트리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찍 자고 아버지께 깨워 달라고 해서 밤새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가 깨우시려고 '승철아!'하면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러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천천히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예뻐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들의 마음속에서 공부가 최고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요셉이었고 만족의 이유가 요셉이었습니다. 자랑과 프라이드의 근거가 요셉이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채색 옷을 보고 마음속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피 묻은 채색 옷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 마음으로 스올로 아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야곱은 선민입니다. 선민이 아니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방인과 불 신앙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돈 벌면 기쁜 줄로 알고 속아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들과 딸을 잘 키우면 기쁠 줄 알고 속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다 적당히 해보고 더 이상은 이 땅에서 기쁨의 이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게 될 때에 선민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그 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부터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살던 기간 동안에 야곱의 신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의 나이가 108세입니다. 108년 동안을 축복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축복을 주도하며 일군 모든 것들과, 하늘만을 듣고 하늘로부터만 이 땅을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관장하는 애굽 대제국의 모든 물질의 양을 비

교해보면 새 발의 피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축복 주도권을 쥐고 설치고 애쓰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속이고 온갖 못할 짓을 다 해가면서 모은 것들이 결국은 대기근이 임하면서 70인의 자기 식솔들조차도 구해낼 수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대제국의 모든 재화와 물질을 자기 손안에 넣고 주무르며 만인을 살려내는 일을 해냅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추구하던 야곱이 요셉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찾고 얻고 지켜서 내가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의 손을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 현장 앞으로 이끌려져서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채색옷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같은 것,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처럼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발적으로 바쳤습니다.
야곱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버리십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보고 마음에서 죽은 줄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채색 옷이고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찢기고 피범벅이 되어서 죽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그 재산에 피 묻은 채색 옷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입니까? 그 아들의 피 묻은 채색 옷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야곱이 채색 옷을 보면서 죽었다고 믿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병기인 이 피 묻은 채색 옷은 세상에 대해서 선민을 죽게 만드는 비밀병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될 때에, 이 비밀병기에 의해서 일어난 죽음의 파급 효과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만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아브라함만의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위치가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그 내용은, 선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일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채색 옷이라는 비밀병기를 사용해서 빼앗아 가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요셉을 뺏긴 뒤에 마음 상태를 모든 선민의 마음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펼쳐놓으신 피 묻은 채색 옷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선민에게 남는 길은 단 하나, 하늘 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갖고 계신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기쁨의 가능성과 이 세상 땅위에서 어떤 축복을 가졌을 때와도 비교가 안 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축복으로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당신의 계획과 섭리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이 땅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용하셔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턱시도는 입어봐야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쥘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피 묻은 채색 옷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놓게 하는 것이고, 이 땅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채색 옷이 하늘의 비밀병기입니다.
오늘도 회사든 가정이든 그 순간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한 시간이라도 내 마음에서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한 시간 동안에 채색 옷을 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그것에 대해 죽고, 그 비밀병기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복으로 끌어안고 이 땅에서는 애굽을 살린 역사와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땅위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턱시도를 입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에 대하여 죽게 만드는 하늘의 비밀병기인 채색 옷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순간순간 발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